

환자 진료에 돈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

의사라는 직업은 관점에 따라 다르나 괜찮은 직업임에 틀림없다. 적어도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때로는 “돈”이라는 과물이 개입될 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갖게 된다.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인 것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환자만 진료한다면 어떠한 직업보다 성직(聖職)임에 틀림없다. 대학교수인 필자는 그래도 동료 의사들에 비해 경제, 돈에 대하여 신경을 덜 쓴다. 왜냐하면 봉급을 받는 봉직(奉職)의사이기 때문이다.

그러나 환자를 진료하면서 “돈”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환자를 대할 기회가 가끔 있다. 제대로 치료를 받기만 하면 치유될 수 있는데 “돈”이 모자라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. 필자가 경험한 두 명의 환자가 있었다. 한 분은 강원도에 사는 남자였고 또 한 환자는 젊은 외국인 여자였다.

퇴원을 해야겠는데 퇴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자꾸 퇴원이 늦어졌던 50대의 남자환자였다. 회진 시 이제 퇴원해도 좋은데 왜 안하느냐며 웃으니, “퇴원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.”는 것이었다. 그래서 나는 적선하는 마음은 아니었지만, 돈을 빌려주어서 내보내야겠다고 생각되어 얼마나 모자라느냐고 물었더니 약 40만원이라고 했다. 꼭 갚으시라는 말과 함께 나는 그 돈을 꿔 주었고 환자는 퇴원을 했다.

퇴원 후 대개 추후 진료를 위해 내원하는 것이 상례(常例)인데, 이 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.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졌다. 그 이유는 환자의 상태가 중요하기도 했고, 무엇보다 환자를 믿었던 나의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.

결국은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빌려 준 돈은 받지 못했다. 그 환자에게 베푼 내 마음은, 그저 계속 꿔준 “돈”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욱 마음 편한 일이다.

또 한 명의 환자는 외국 여자 환자였다. 20대의 젊은 무용수로, 심한 장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.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되도록 검사 항목도 최소로 하고 정말 신경써서 치료하여 3, 4일쯤 지나서 그녀는 완쾌되었다. 퇴원하기로 한



윤 방 부

연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

오후에 그녀는 필자의 진료실을 찾아와 고맙다고 하면서 좀 상의할게 있다고 했다.

무엇이라고 물으니,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 내한하여 모 호텔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돈이 그렇게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곧 일본으로 가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. 한 \$200쯤만 쥐 주면 한달 이내에 꼭 갚겠다는 것이었다. 어찌 보면 필자의 막내 아들보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돈을 벌겠다고 만리타향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귀엽고, 또 솔직한 마음도 어여빠서 꽤히 승낙했다.

이후 병원 일이 바빠서 까맣게 그녀를 잊고 있었는데, 어느 날 필자를 도와주는 사무원으로부터 등기로 온 항공우편을 받게 되었다. 이 우편물 속에는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\$200이 들어 있었다. 그 순간 얼마나 즐거웠는지…….

이 글을 쓰면서 하필 외국인을 예로 들었느냐고 한다면 필자는 할 말이 없다. 그러나 두 환자를 도와 본 이후로 다시는 환자들에게 돈을 쥐 주는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, 결국 내가 경험한 두 명의 환자에 대해 적을 수밖에 없다.

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누구든지 인술(仁術)을 말한다. 또 인술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. 그러나 때로는 돈이라는 괴물이 진료에 개입되어 예기치 않은 일들이 가끔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. 따라서 필자가 전공한 가정의학에서는 소위 환자 중심의 의료를 주창하고 있으며 또 문제 중심의 진료를 그 특성으로 한다.

어떤 환자가 입원했을 때 입체적으로, 포괄적으로 환자를 분석한다. 건강·사회·정신·가족적 문제·유전, 직업, 결혼, 습관, 기호품, 취미 등을 자세히 들어보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반드시 고려한다. 경제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환자진료의 적정선, 더 나아가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가 어려울 때 그 타개책을 강구하여 환자의 진료를 돕기 위해서이다.

전공의들에게, 어떤 환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결책을 가르쳐야 하는 것도 필자와 같은 교수의 임무 중의 하나이지만 별 묘책이 없다. 단지 환자진료에 있어서 “돈”이 개입되어 서로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바랄 뿐이다. ㉞